

# 『호수경(狐首經)』의 문헌적 연구

장성규

(공주대 인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혜정

(대전대 강사)

주제어 : 풍수지리, 호수경, 백학, 판본, 문헌

## 1. 서론

『호수경(狐首經)』은 한대(漢代)의 백학(白鶴)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풍수경전(風水經典)으로 국내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호수경』의 내용은 광박의 『금낭경(장서)』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 『조선왕조실록』에 『호수경』의 「주원편(主元篇)」 전체와 「수원편(水元篇)」 일부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sup>1)</sup> 『호수경』은 조선 초기부터 유행했던 풍수지리의 중요문헌으로 주목된다. 『호수경』의 제명(題名)은 ‘호사수구’의 뜻에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sup>2)</sup>

전통 건축의 입지에서 풍수지리는 중요한 분과인데, 초기 풍수지리문헌 중 『금낭경』과 『청오경』은 풍수지리의 핵심과 방법론이 서술된 고전이다. 『금낭경』은 경문(經

文)과 전문(傳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낭경』의 경문은 『청오경』에서 인용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3)</sup>

그런데 『금낭경』의 ‘경왈(經曰)’ 내용이 『청오경』보다 오히려 『호수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은, 『금낭경』에서 인용한 ‘경(經)’에 『청오경』뿐만 아니라 『호수경』도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또 송대와 원대의 문헌들이 『호수경』을 언급한 점도 풍수지리문헌으로서 『호수경』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호수경』에 대한 연구는 양택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양기와 음기가 주도하는 방위에

3) 『靑鳥先生葬經』古今圖書集成本: “先生漢時人, 精地理陰陽之術, 而史失其名. 晉郭氏『葬書』引經曰, ‘爲證者即此是也’. 先生之言, 簡而嚴, 約而當, 誠後世陰陽之祖是也. 郭氏引經, 不全在此書, 其文字面不全, 豈經年代久遠, 脫落遺佚與, 亦未可得而知也.(청오선생은 한나라 때 사람으로, 지리와 음양의 술법에 정통하였으나 역사에는 그 이름이 실전되었다. 진의 광박이 쓴 「장서」에서는 「장경」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증거로 한 책이 즉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청오선생의 글은 간결하면서도 엄밀하고, 요약되었지만 마땅하여 참으로 후세 음양가들의 근본이 되는 책이다. 광씨가 인용한 경은 이 책에 전문이 있지 않고, 그 문자가 온전하지 않은 것은, 그 경의 연대가 오래되어 탈락되고 유실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清] 陳夢雷 等撰, 『古今圖書集成』474冊, 中華書局, 北京, 49葉, 1934.

1) 『世宗實錄』 23年(1441年) 8月 25日 1번째 記事: “狐首經云, “主山在坎, 轉步癸丑, 垂頭爲良. 水行益前, 山行益後, 先受木氣, 次受土氣. 方受水氣, 三年一步, 十年一世……”狐首經云, “宜出而入, 乖戾之集. 宜入而出, 傷破之實.” 又云, “見水所出, 名曰短氣. 又穴在天關.””

2) 음양비용본 『호수경』 광박의 서(序)에 경의 제목에 대한 언급이 있다. 호사수구(狐死首丘)는 여우도 죽을 때는 제가 살던 굴이 있는 언덕으로 머리를 돌린다는 뜻이다. 즉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대한 언급에서도 주목을 끈다. 왜냐하면 양택 풍수지리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황제택경』의 양기와 음기 주도 방위관과 유사한 내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풍수지리 연구에서 『호수경』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기론(理氣論) 관련 내용 때문이다. 『호수경』에서는 형기론(形氣論)은 물론 구성(九星), 팔괘(八卦), 자침(磁針), 득수(得水), 파괴(破口)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기론의 주요 내용이 언급된 초기문헌이라는 점에서 『호수경』은 매우 중요하다. 또 나반(羅盤)의 원형인指南針(指南針)의 자편각(磁偏角)에 대한 개념이 당대(唐代) 이전에 정립된 점<sup>5)</sup>에서 보더라도, 『호수경』에 대한 검토는 『호수경』 자체에 대한

4) 『호수경』에서는 “양기는 자방에서 생기고 음기는 오방에서 생기며 자방에서 병방까지 동남쪽은 양기를 주관하고, 오방에서 임방까지 서북쪽은 음기를 주관한다(陽生於子, 陰生於午, 自子至丙, 東南司陽, 自午至壬, 西北司陰.)”라고 하여, 음기와 양기의 기준점을 자오로 정하였다. 이와는 달리 『황제택경』에서는 “乾은 震, 坎, 艮, 方의 삼남을 거느리며 모두 陽의 방위에 속한다(즉 서북 건방에서 진방까지는 陽명이 된다). 坤은 巽, 離, 兌, 方의 삼녀를 거느리며 모두 陰의 방위에 속한다(즉 동남 손방에서 술방까지는 陰명이 된다.)”(乾將三男震坎艮, 悉屬於陽位。(即從西北乾位之震爲陽明矣。)坤將三女巽離兌, 悉屬於陰之位。(即從東南巽角順之戌爲陰明矣。)”라고 하여 巽과 乾을 음기와 양기의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오를 음양의 경계로 하는데 잘못이 장차 심할 것이다(或者取子午分陰陽之界, 悞將甚也。)”라고 하여 그 점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호수경』과 『황제택경』은 동남방은 양기가 주관하고 서북방은 음기가 주관한다는 관점은 같지만, 그 시작점을 각각 子午方과 乾巽方으로 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5) 王其亨 等, 『風水理論研究』(第2版), 天津大學出版社, 天津, 226頁, 2005: “明代顧乃德匯集唐宋時風水論著『地理天機會元』, 解釋指南針, 提到, “昔金陵得石碑於江中, 載李淳風『針石論』, 亦謂子午爲中道格。”如果此說可證實, 則唐初已用指南針, 并涉及磁偏角。(명대의 고내덕은 당송시기의 풍수론을 모아 『지리천기회원』을 찬하였는데, 指南침을 해석하면서 “옛날 金陵의 강에서 얻은石碑에 李淳風의 『針石論』이 적혀 있었고, 역시 子午의 가운데로 格을 논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唐初이 이미 指南針을 사용했고 또 磁偏角도 언급한 것이다.)”

이해는 물론 풍수지리 이론 및 문헌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호여기<sup>6)</sup>가 바로 조선시대 오대과 시서(五代科試書)이었던 『호수신』<sup>7)</sup>의 저자라는 점은 『호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선시대 풍수지리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 2. 『호수경』 언급 문헌과 반침용법

역사적으로 『호수경』이 언급된 최초 문헌은 『직재서록해제』<sup>8)</sup>이다. 『직재서록해제』

6) 胡舜申은 宋代의 문신으로 汝嘉는 그의 字이다. 그는 음양비용본 『호수경』의 題와 跋을 썼다. 호수신(1091-1181)은 蘇州 城郭의 풍수지리를 살펴보고 八門 중에서 蛇門을 폐쇄시킨 것이 부당함을 『地理新法』의 논리로 구체적이고 자세히 논술하였다. 이것에 관해 그가 지은 「吳門忠告」는 歷史上 最初의 風水地理 適用事例 論文의 성격을 띠고 있다.

7) 胡舜申은 인명과 책명으로 모두 쓰인다. 『胡舜申』은 조선시대 五代科試書 가운데 하나인데, 그 영향력에 대해 ·선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리에 대해 오로지 호수신의 법만 사용하고 있다. 그전에 조종조의 실록을 보았는데, 태종 초년에 하륜이 정권을 잡아 국을 세우고 관원을 두어 풍수에 관한 글을 교정하면서 하륜 스스로가 총 책임을 맡았다. 그리하여 다른 방술은 모두 버리고 호수신의 방술만 숭상하여 썼으므로 오랫동안 법제로 정하여 지금까지 폐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간에 자리를 잡거나 생도들이 강론하고 익힐 때에 모두 이 글을 위주로 하고 있다.(我國地術, 專用胡舜申. 曾見祖宗朝實錄, 則太宗初年, 河崙執政, 建局設官, 校定風水, 而崙自總之. 遂盡去他方, 只崇用胡舜申, 永爲定制, 至于今不替, 故公私相地, 生徒講習, 皆主此書): 『象村先生集』, 제34권, 風水家說.

8) 『直齋書錄解題』는 宋代의 도서목록집이다. 南宋시대 國子監司業을 지냈고 大藏書家이며 目錄學家인 陳振孫이 嘉熙 2년(1238)에 臨安(지금의 杭州)에서 편찬을 시작해 완성한 私人藏書 해제목록이다. 陳振孫은 호가 直齋이고 浙江 安吉 사람이며 永嘉學派 학자인 周行己의 외손이다. 그는 浙江省에서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적을 구입하여 초록하고, 만년에는 侍郎으로 致仕한 뒤 서적 수집을 계속하여 당시 최대 장서가 되었다. 서록은 원래 56권이었으니 經·史·子·集 4류에 53류로 나누었다. 總序와 大序는 없고, 語孟·時令·詔令·章奏·小學·陰陽·音樂의 7류에 小序가 있다. 수록한 서적은 3천여 종, 51,180권에 이르러, 1178년에 官修한 『中興館閣書目』(44,486권)보다 많다. 이 서록은 『永樂大典』에 수록됨으로써 전해졌다.

에서는 “『호수경』 1권. 지은이가 분명하지 않다. 광경순이 서문을 썼다고 하지만 역시 가탁한 것이다. 호여가가 서문을 쓰면서 전해졌는데, 문장이 품위가 있고 점잖으며 내용 또한 자못 이치가 있다. 『음양비용』에 전문이 실려 있다.”<sup>9)</sup>라고 하였다.

『직재서록해제』는 송대의 문헌이므로 『호수경』은 송대 혹은 송대 이전의 문헌이 된다.

그것은 송대의 대유학자인 주자(朱子)의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주자는 『주자전서』 제13책, 『주역참동계고이』<sup>10)</sup>의 주석에서 『호수경』은 알 수 없는 책이라 하였다.<sup>11)</sup> 또 『주희일문집고』에서는 『호수경』과 『장서』는 『적정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추정하였다.<sup>12)</sup> 위의 내용에서 『호수경』은 주자

당시에 『장서』와 더불어 증시되던 문헌이고, 주자는 『호수경』을 『적정경』에서 유래한 서적으로 여겼음이 나타난다.

송대의 『문헌통고』<sup>13)</sup>, 220권의 『경적고』에도 『직재서록해제』의 내용을 인용하여 『호수경』이 언급되고 있다.<sup>14)</sup>

원대의 『전원문』에도 광박의 서가 있는 『호수경』이 언급되어 있다.<sup>15)</sup> 『전원문』 10권에서는 당시 남아있는 풍수지리 문헌 중에

경』은 과연 子房에게서 나온 것인지요?” “이는 참으로眞僞를 가리기 힘들다. 그러나 上, 中 두 권은 子房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고, 下卷에는 본래 三式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지 하나만 남았다, 그런데 문체가 좀 속되어서 아마도 후세 사람이 자방을 가탁하여 모방하였거나 또는 원래 그 부분이 있었는데 眞本이 실전되어 후세 사람이 그것에 따라 설명했을 것이다. 上卷은 전체적으로 地理를 논하였는데 나중에 『狐首經』과 郭璞의 『葬書』가 모두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東景南, 『朱熹佚文輯考』, 江蘇古籍出版社, 南京, 516頁, 1991.

13)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고찰한 정치서. 馬端臨(1254-1323)이 지었으며 모두 348권이다. 唐代 杜佑가 지은 『通典』을 기초로 해서 상고시대로부터 宋나라 寧宗(1195-1224 재위) 때까지의 문물제도의 연혁을 기술했다. 분류가 『通典』보다 상세해, 田賦·錢幣·戶口·職役·徵權·市權·土貢·國用·選舉·學校·職官·郊社·宗廟·王禮·樂·兵·刑·經籍·帝系·封建·象緯·物異·輿地·四裔 등의 24개로 나누었다. 그중 經籍·帝系·封建·象緯·物異의 5개는 『通典』에 없는 것이고, 특히 經籍考는 가장 특색이 있는 부분이다. 모든 考마다 按語(작자와 편자의 주해·설명·고증·주 따위의 평어)를 붙였는데 정밀하고 독창적인 논란이 많다.

14) 『文獻通考』 「經籍考四十七」: “狐首經一卷. 陳氏曰, 不著名氏. 稱郭景純序, 亦依口也. 胡汝嘉始序而傳之. 其文亦雅馴, 言頗有理.” [元] 馬端臨, 『文獻通考』, 中華書局, 北京, 1089頁, 1986.

15) 『全元文』, 第五冊, 「潘樵隱陰陽要訣序」: “經前有景純所爲序, 謂斷簡中得此經, 不知何世書. 後有寧崇陳氏達野跋, 以謂此沈氏萬卷樓□一物, 云得之歐陽文忠公家, 又不知公自何而傳. 是則此書來歷已無所考, 疑序亦非郭氏所作者. 至謂『錦囊』所引經曰, 皆『狐首』之辭.(경 앞에 있는 광박의 서에서는, 죽간에서 이 경을 얻었으나, 어느 시대 확인지는 모른다고 하였다. 나중에 송녕 진씨가 이것을 심씨의 만권루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고 구양 문충공의 집에서 얻은 것이나 문충공이 어떻게 해서 전했는지는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의 내력이 오래되어 고증할 수 없으니, 서문도 광박이 지은 것이 아닌지, 『금낭경』에서 경을 인용하여 말한 것이 모두 『호수경』의 말이라는 것은 의심스럽다.)” 李修生 主編, 『全元文』, 第五冊, 江蘇古籍出版社, 南京, 132頁, 1998.

9) 『直齋書錄解題』, 卷12: “狐首經一卷. 不著名氏. 稱郭景純序, 亦依口也. 胡汝嘉始序而傳之. 其文亦雅馴, 言頗有理. 陰陽備用中全載”, [宋] 陳振孫 撰, 徐小蠻, 顧美華 點校, 『直齋書錄解題』,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377頁, 1987.

10) 後漢의 魏伯陽이 古人의 『龍虎經』을 얻어 『周易』 형식을 빌려 『周易參同契』를 저술하였는데 內丹과 外丹을 방법론 삼아 계통적으로 煉丹과 神仙을 논술하고 있다. 『周易參同契』란 글자 그대로 『周易』과 더불어 이치가 통하고 뜻이 합한다는 뜻이다. 朱子는 이에 대한 주석서 가운데 後蜀 彭曉의 『周易參同契通眞義』를 기초로 본문을 비교하여 『周易參同契考異』를 저술하였다. 1305년 黃瑞節이 부록을 추가한 것이 『朱子全書』(第13冊)에 포함되어 1341년에 간행되었다.

11) 『周易參同契考異』: “今考『參同契』中有“古文記『龍虎』”之文, 往往古有其文, 如『火記』之類, 特恐非今所傳者耳. 鮑氏云, 此乃『三墳書』, 『狐首經』之比, 未可知也(지금 『參同契』에 있는 “古文에 기록된 『龍虎』”의 글을 살펴보니, 왕왕 옛날에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火記』와 같은 책은 특히 지금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鮑氏가 이르기를, 그것이 『三墳書』나 『狐首經』 같은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하였다.)”

[宋] 朱熹 撰, 朱傑人, 嚴佐之, 劉永翔 主編, 『朱子全書』 第13冊,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536頁, 1980.

12) 『朱熹佚文輯考』: “敢問『赤靈經』果出于子房否?” “此固難辨眞僞, 然上, 中二卷非子房不能道, 下卷本有三式, 今只有其一, 然文理理近, 恐後人依放而托之, 或元有此卷而失其眞本, 後人從而爲之辭耳. 上卷專論地理, 後來『狐首經』, 郭『書』, 恐皆出于此(감하 문건데 『적정

서 『호수경』이 가장 오래된 책이라 하였다.

지리가들은 적송자의 『청낭서』에서 시작하여, 『금낭서』, 『호수경』, 저리자, 청오선생, 광박, 일행사, 원천강, 이순풍, 증문천, 양균송과 같은 이들이 모두 그 술법에 정미하였다고 한다. 광박의 『청낭서』는 이미 화재에 타버려 현존하는 『호수경』이 가장 앞선 책이다.<sup>16)</sup>

또 명대의 『지리인자수지』에서는 “『호수경』은 조갈계에 의하면 ‘심씨의 수많은 책 가운데서 얻었는데, 지은이의 이름은 없으나 광박의 『장서』에 인용된 경이다.’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17)</sup> 같은 명대의 저서 『탁옥부』<sup>18)</sup>의 인용서적 목록인 「탁옥부집적제서기실(琢玉斧集摘諸書紀實)」에도 『집호수경(集狐首經)』이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9)</sup>

『장서』 유강동본과 사고전서본에서 『호수경』을 인용하여 원문에 대한 주를 달았던 점은,<sup>20)</sup> 중국 풍수지리학사에서 『호수경』이 상

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청대의 원수정은 『지리답자록』에서 금어(金魚)를 설명할 때 『호수경』의 “금어수가 경계를 짓지 않으면 자웅이 근본을 잃은 것이니 비록 장풍이 된 형국이라 해도 하관할 수 없다.”<sup>21)</sup>는 부분을 인용하였다. 또 안산에 대해 『호수경』의 “안산은 높아야 눈썹과 나란하고, 낮으면 가슴 정도이다.”<sup>22)</sup>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수법에 대한 설명에서는 『호수경』의 “흙은 기의 몸이고, 기는 물의 모체이다.”를 인용하였다.<sup>23)</sup>

청대의 관찬서(官撰書)인 『흙정협기변방서』<sup>24)</sup>에도 『호수경』이 인용되어 있다.<sup>25)</sup>

劉江東本 『葬書』：“夫人之葬，蓋亦難矣！支壘之辨，眩目惑心，禍福之差，侯虜有間。條의 注：“狐首經言，岡壘之辨，支阜之別，毫釐有差，禍福千里，文異義同，皆言葬法之難也。（『호수경』에 이르기를 岡과 壘의 분별과 支와 阜의 구별은 털끝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화복은 천리라고 하였다. 글은 달라도 뜻은 같으니, 모두 장법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新文豐出版公司編輯部編, 『叢書集成新編』第25冊, 哲學類·宗教類,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234頁, 1985. ‘岡壘之辨, 支阜之別, 毫釐有差, 禍福千里’는 陰陽備用本 「形元篇」에 나온다.

16) 李修生 主編, 『全元文』(十): “地理家謂始於赤松子「青囊書」·「錦囊書」·「狐首經」, 樗里子, 青烏先生, 郭璞, 一行師, 袁·李·曾·楊輩, 俱精其術. 郭璞青囊中書已爲火取去, 今所存「狐首經」爲第一書.”, 李修生 主編, 『全元文』, 江蘇古籍出版社, 南京, 676頁, 1999.

17) [明] 徐善繼, 徐善述 著, 『地理人子須知』: “引用諸名家堪輿書目. 狐首經, 按曹葛谿 謂得之沈氏萬卷樓中 無作者名氏 郭璞葬書所引之經卽一也.”, [明] 徐善繼, 徐善述 著, 『地理人子須知』, 武陵出版有限公司, 臺北, 20頁, 2000.

18) 『琢玉斧』는 명나라의 徐之鑣이 편찬했다. 첫머리에는 巒頭歌括이, 다음에는 理氣定議, 그 다음에는 作用諸法이 있다. 서명을 琢玉斧라고 부르는 것은 산천을 玉에 비유하고 땅을 고르는 일을 옥을 다듬는 琢에 비유하며, 고금의 방술서를 斧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19) 景仁文化社 編, 『風水地理叢書』, 景仁文化社, 서울, 20頁, 1990.

20) 四庫全書本 『葬書』,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條의 注: “儼金魚不界, 則謂之雌雄失經, 雖藏風亦不可用.(만약 금어수가 경계를 짓지 않으면 그것을 일러 ‘자웅이 근본을 잃었으니, 비록 장풍이 되었어도 역시 쓸 수 없다.’) 위의 책, 『葬書』, 808-15頁.

21) 袁守定, 『地理啖蔗泉』: “狐首經, 金魚不界, 雌雄失經, 局雖藏風, 亦不可下.”, [清] 袁守定, 『地理啖蔗泉』, 武陵出版社, 臺北, 100頁, 2003.

22) 위의 책, 『地理啖蔗泉』, 166頁: “『狐首經』, 案高齊眉, 案低捧心.”

23) 위의 책, 『地理啖蔗泉』, 183頁: “『狐首經』, 土爲氣體, 氣爲水母.”

24) 『欽定協紀辨方書』는清代인 1741년에 乾隆帝의 명으로 기존의 選擇論을 종합, 정리한 책이다. 曆書인 『御定星歷考原』과 함께 選擇論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5) 『欽定協紀辨方書』, 「論用盤針」: “『通書』曰, “盤針之法, 漢初只用十二支, 自唐以來始添用四維, 八干.” 古歌云, “縫針之法壬子中, 更論正針子亦中.” 又胡舜申「陰陽備用」云, “聞諸前輩言, 盤針之用, 當以丙午, 壬子之中者爲正.” 『狐首經』云, “陽生于子, 陰生于午, 自子至丙, 東南司陽, 自午至壬, 西北司陰. 丙午, 壬子之間爲天地之中, 南北之正.” 其說相合, 故斷然以丙午, 壬子中針爲是. 按, 『通書』以壬子之中爲縫針, 今謂之中針. 蓋中針之子位, 當壬子之中, 乃子之初, 自子至癸, 皆子位也. 地理家格龍用之. 若定方向, 則用正針. 消砂納水則用縫針.(『통서』에서 말하기를, “반침의 용법은 한초에는

조지프 니덤은 『흙정협기변방서』의 내용을 인용해 『중국어과학기술사』 26)의 물리학 부분에서 『호수경』을 언급하였다.<sup>27)</sup> 이령(李零)이 주편한 『중국어방술개관』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전재되어 있다.<sup>28)</sup>

전통지리에서 24방위를 나누면 입자방은 북쪽의 30도를 말하고 병오방은 남쪽의 30도를 가리킨다. 이 방향은 항상 남북을 가리키므로 천지의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나반의 외반

단지 십이지만 사용하였는데, 당대부터 四維와 八干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古歌에 이르기를, “봉침의 법은 입자의 가운데요, 정침을 논할 때는 子의 가운데이다.”라고 하였다. 또 호순신의 『음양비용』에서 이르기를, “앞선 선배들의 말을 들으니, 반침의 용법은 마땅히 병오와 입자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호수경』에서 이르기를, “양기는 자에서 생기고, 음기는 오에서 생기니, 자에서 병까지의 동남방은 양기를 주관하고, 오에서 입까지의 서북방은 음기를 주관한다. 병오와 입자 사이는 천지의 가운데이자 남북의 기준이다.”라고 하였다. 위 설명은 서로 부합하기 때문에 단언코 병오와 입자의 중침이 옳다고 본다. 『통서』에 의하면 입자의 가운데가 봉침인데, 지금은 그것을 중침이라 한다. 중침의 子의 위치는, 입자의 가운데이지만, 子의 시작, 子부터 癸까지 모두 子의 위치이다. 지리학자들이 용을 논할 때 그것을 사용한다. 방향을 정할 때는 정침을 사용하고 砂水의 消納을 논할 때는 봉침을 사용한다.” [清] 允祿 等奉勅撰, 謝路軍 主編, 鄭同 点校, 『欽定協紀辨方書』, 華齡出版社, 北京, 685頁, 2009.

26) 조지프 니덤(Joseph Needham, 1900-1995)이 지은 중국과학사 연구서로 1954년 영국에서 제1권이 출판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서양의 근대과학이 분석적, 기계론적, 결정론적인 데 비해 중국의 전통과학은 종합적, 유기체적, 비결정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을 하여 동양의 과학문명이 서양보다 뒤떨어졌다는 편견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7) 李約瑟, 『中國科學技術史』(第四卷), 科學出版社·上海古籍出版社, 北京, 291頁, 1990: “相信丙-午向或申針方式的人們說, 古代的『狐首』書上解釋得非常清楚, “自子(北)至丙(南偏東15度)的方向爲東南, 因此表示陽, 自午(南)至壬(北偏西)的方向爲西北, 因此表示陰. 壬-子-丙-午這一區域, 天地的中心.(병오향 또는 중침 방식을 믿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고대 『호수』서의 해석이 매우 분명하다고 하는데, 즉 “자방에서 병방까지의 방향은 동남쪽이 되므로 양을 나타내고, 오방에서 입방은 서북쪽이 되므로 음을 나타낸다. 입자와 병오 이곳은 천지의 중심이다.”)

28) 李 零 主編, 『中國方術概觀』, 人民中國出版社, 北京, 835頁, 1993.

방위각으로 환산하면 입자방은 345-15도 사이를 말하고 병오방은 165-195도를 말한다. 또 자방에서 병방까지를 양으로 보고 오방에서 입방까지를 음으로 보아 양과 음의 주도 방위를 구분하고 있다. 이 내용은 『호수경』의 구절을 거의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sup>29)</sup>

현대 중국의 지리학자인 양문형(楊文衡)은 『역학여생태환경』에서 『호수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전형적 명당을 제시하였다.<sup>30)</sup>

위와 같이 『호수경』은 송대의 다양한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고, 원대의 문헌 및 명대의 풍수지리문헌에도 언급되어 있다. 또 청대의 『흙정협기변방서』와 『지리담자록』에 그 내용이 인용되어 있고, 조지프 니덤과 양문형은 중국과학사와 지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내용으

29) 『狐首經』 奇元篇: “陽生於子, 陰生於午, 自子至丙, 東南司陽, 自午至壬, 西北司陰. 丙午壬子, 天地之中, 南北之正, 號曰指南.(陽氣는 子方에서 생기고 陰氣는 午方에서 생기며 子方에서 丙方까지 동남쪽은 陽氣를 주관하고, 午方에서 壬方까지 서북쪽은 陰氣를 주관한다. 丙午와 壬子는 天地의 중심으로 남북을 바르게 하니, 이를하여 指南이라 한다.)”, [明] 張鳴鳳 撰, 『地理參贊玄機仙婆集』(『狐首經』), 萬有善書出版社, 板橋, 869頁, 1982.

30) 楊文衡, 『易學與生態環境』, 中國書店出版社, 北京, 132頁, 2003: “『狐首經』 論砂曰, 華蓋昂昂, 朝揖堂堂, 左抱右掩. 巒嶺重岡, 青龍索左, 白虎居右, 朱雀舞前, 玄武鎮後. 几案橫張, 生氣洋洋, 勢止形昂, 前闊後岡, 龍首之藏.(『호수경』에서는 砂를 논하여 말하기를, “화개성이 빛나고, 평평한 곳으로 음하듯 모여들며, 좌우로 가려주고 막아준다. 산이 중첩되고 언덕이 겹쳐져 청룡은 왼쪽을 감싸고 백호는 오른쪽에 있으며, 주작은 앞에서 춤추고 현무는 뒤에서 진호한다. 내용은 산가지들을 던진 듯, 내려온 언덕은 양들을 몰 듯, 큰 산이 조아리면 작은 산이 일어난다. 안산은 케치럼 길게 누워 있고 생기는 양양하며 세가 머물고 형이 우뚝하며,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는 언덕이 받쳐주면 용머리가 들어 있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책, 『易學與生態環境』, 145頁: “第五, 要授受動靜相承. 這如前面『狐首經』講的, 青龍要蜿蜒, 白虎要馴馴(俯), 玄武要垂頭, 朱雀要翔舞. 就是說, 該動的要動, 該靜的要靜, 配合得當.(다섯 째, 授受와 동정에서 서로 받들어야 한다. 이것은 앞의 『호수경』에서 강론한, 청룡은 완연해야 하고, 백호는 순부해야 하며, 현무는 수두해야 하고, 주작은 상무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움직여야 할 때는 움직여야 하고 고요해야 할 때는 고요해야 배합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로 다루고 있다. 이것으로 송대에도 유행했던 『호수경』의 영향은 원대와 명대 및 청대에도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호수경』 음양비용본

특히 『호수경』의 병오와 임자를 천지의 중심으로 본 것은 나반의 용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풍수지리에서 나반의 외반, 중반, 내반은 각각 그 쓰임새가 다르며 그 방위각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또 나반에 대한 설명과 길지(吉地)에 대한 내용이 현대 과학사와 지리학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점도 의미가 크다 하겠다.

### 3. 『호수경』의 판본과 내용

『호수경』은 『호선생음양비용』 31), 『지

31) 1968년 臺灣國立故宮博物院에 元代의 판본인 『胡先生陰陽備用』, 卷七부터 卷十三까지 소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책은 원래 中國 北平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故宮博物院으로 옮겼다가 다시 臺灣 國家圖書館으로 이동한 것이다. 책명은 『胡先生陰陽備用』이고, 元刊本으로 높이와 폭은 17.5×12.5cm이다. 이하

리참찬현기선과집』 32), 『지리통일전서』 33), 『역대지리정의비서이십사종』 34), 『형가이십중』 35)의 다섯 판본이 전해진다. 이외에

陰陽備用本이라 약칭한다.

32) 明代에 張鳴鳳이 편찬한 『地理參贊玄機仙婆集』은 전체 13권인데, 『狐首經』은 제10권에 수록되어 있다. [明] 張鳴鳳 撰, 『地理參贊玄機仙婆集』, 萬有善書出版社, 板橋, 861-870頁, 1982. 이하 仙婆集本이라 약칭한다.

33) 『地理統一全書』의 원래 책명은 『刻仰止子參定正傳地理統一全書』이고, 明朝 崇禎元年(1628)에 福建省 建陽人인 余象斗가 撰輯한 余應蚪, 余應科의 刻本이다. 『狐首經』은 卷十一에 수록되어 있다. 明西-余象斗著, 『地理統一全書(古本)』, 進源書局, 台北, 2002; 明西-余象斗著, 『正傳地理統一全書(上, 下冊)』, 大山書店, 台北, 1155-1157頁, 2000. 이하 統一全書本이라 약칭한다.

34) 『歷代地理正義秘書二十四種』은 清代 張受祺가 輯注한 것으로 『形家二十種』에 비해 理氣論 분야의 風水地理書도 포함되어 있다. 乾隆 12年(1747年) 華亭張氏刊本인 『歷代地理正義秘書二十四種』의 目錄은 다음과 같다. 青囊經一卷 [上古] 赤松子 撰, 三字青囊經一卷 [□] 左玄女氏 撰, 青烏經一卷 [漢] 青烏子 撰, 狐首經一卷 [漢] 白鶴仙 撰, 管氏指蒙正義一卷 [後漢] 管輅 撰, 葬經正義一卷 [晉] 郭璞 撰, 尋龍捉脈賦正義一卷 [晉] 陶侃 撰, 天玉經正義四卷 [唐] 楊益 撰, 青囊正義二卷 [唐] 楊益 撰, 都天寶照經正義一卷 [唐] 楊益 撰, 遍地鉗正義一卷 [唐] 楊益 撰, 天機金篆正義一卷 [唐] 一行禪師 撰, 歌訣正義一卷 [唐] 鐵冠道人 撰, 囊金正義一卷 [宋] 劉謙 撰, 催官正義一卷 [宋] 賴文俊 撰, 發微一卷 [宋] 蔡成禹 撰, 吳氏心法正義一卷 [宋] 寥瑀 撰, 吳氏解義一卷 [宋] 吳作霖 撰, 譚氏一粒粟一卷 [元] 譚寬藏本, 平地文言正義一卷 [元] 無著募講禪師 撰, 心旨賦正義一卷 [元] 無著募講禪師 撰, 郁離子書正義一卷 [明] 劉基 撰, 參兩正義四卷 [清] 張受祺 撰; 施廷鋪 編撰, 『中國叢書綜錄續編』, 北京圖書館出版社, 北京, 258頁, 2003.

35) 『形家二十種』은 清 道光 19年(1839年)의 豫章義岡 王氏刊本이고 편자는 미상이다. 形家에 속하는 20개의 經典을 묶은 것이다. 현재 中國 國家圖書館 古籍館普通 古籍閱覽室에 소장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形家二十種』의 目錄은 青烏經 題 [漢] 青烏子 撰, 狐首經 題 [漢] 白鶴仙 撰, 青囊經 題 [漢] 赤松子 撰, 管氏指蒙 [魏] 管輅 撰, 捉脈賦 [晉] 陶侃 撰, 葬書 題 [晉] 郭璞 撰, 雪心賦 [唐] 卜則巍 撰, 撼龍經 [唐] 楊益 撰, 疑龍經 [唐] 楊益 撰, 一粒粟 [唐] 楊益 撰, 黑囊經 [五代] 范越鳳 撰, 靈城精義 [五代] 何溥 撰, 發微論 [宋] 蔡發 撰, 穴情賦 [宋] 蔡發 撰, 玉髓經 [宋] 張洞玄 撰, 囊金 [宋] 劉謙 撰, 望龍經 [宋] 吳景鸞 撰, 披肝露膽 [宋] 賴文俊 撰, 玉彈子 [元] 耶律楚材 撰, 析龍經 [明] 劉基 撰, 附聯攝成氏雜撰(即古造葬書佚文佚目)으로 되어 있다: 陽海清 編撰, 『中國叢書廣錄(上冊)』, 湖北人民出版社, 武漢, 723頁, 1996; 陽海清 編撰, 『中國叢書廣錄(上冊)』, 湖北人民出版社, 武漢, 723頁, 1996.

『세종실록』에는 『호수경』 「주원편」<sup>36)</sup> 전체와 「수원편(水元篇)」 일부가 인용되어 있고, 『영락대전(永樂大典)』<sup>37)</sup>에는 『호수경』 「세원편(勢元篇)」<sup>38)</sup>이 모두 실려 있다.

송대 호순신의 『호선생음양비용』은 원대 판각본이다. 이 속에 수록된 『호수경』에는 광박의 서와 호여가(호순신)의 제와 발이 있다. 제에는 ‘지리가제일서(地理家第一書)’라고 명기되어 있고 내용은 천원(天元), 지원(地元), 인원(人元), 산원(山元), 수원(水元), 주원(主元), 세원(勢元), 형원(形元), 장원(葬元), 기원(奇元)의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대 장명봉(張鳴鳳)이 명나라 만력(萬曆)

15년(1587년)에 편찬한 『지리참찬현기선과집』 10권에 수록된 『호수경』은 음양비용본과 각 편의 이름은 같고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다. 다만, 음양비용본에 비해 각 편의 내용이 생략된 곳이 많다.



〈그림 2〉 『호수경』 선파집본

『지리통일전서』는 명나라 승정(崇禎) 원년(1628년)에 간행되었다. 작자는 여상두<sup>39)</sup>로 복건성 건양현(建陽縣) 사람이며 채원정<sup>40)</sup>과 동향이다. 『지리통일전서』의 『호수경』은 10편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을 추려 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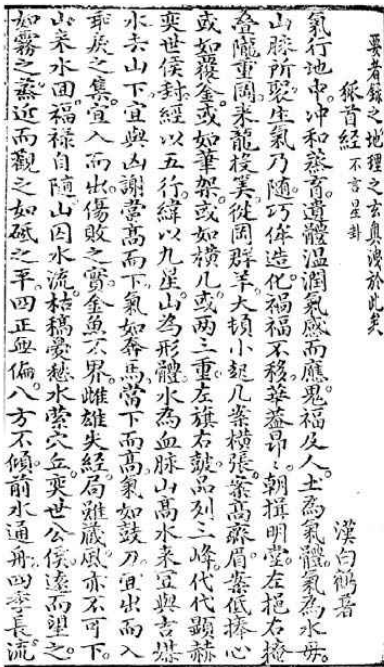
36) 『世宗實錄』 27年(1445年) 4月 4日 3번째 記事: “主元篇云, “山骨歷歷, 來龍端的. 無偏無跛, 無反無側. 東北正良, 當西正兌. 純一不雜, 氣力純粹. 艮帶丑寅, 兌帶庚辛. 來山既雜, 難定五行. 五行淆訛, 神焉得寧? 來落一體, 剪裁極易. 目巧心巧, 自然合理. 移步觀山, 便殊(殊)方位. 立山在坎, 轉步癸丑. 垂頭爲艮, 水行益前, 山行益後. 先受木氣, 次受土氣, 方受水氣. 三年一步, 十步一世. 審詳而用, 福祿自至. 模糊不清, 其氣不勁, 倚附斜橫, 其氣不正, 勢靠差排, 其氣不盛, 昂頭拒戶, 其氣不應. 山勢既差, 五行難定. 中主淆雜, 動則爲病.” 이하 世宗實錄本이라 약칭한다.

37) 명나라 永樂帝(成祖)에 의해 勅撰된 최대의 類書로 본문 2만 2877권, 目錄 60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403년 영락제는 解籍 등에 類書의 편찬을 명하여 다음해 완성되자 이를 『文獻大成』이라 하였다. 이후 이보다 대규모의 것을 편찬시켜 1407년에 완성되자 『永樂大典』으로 고쳤다. 이에 중사한 인원은 2,000명 이상에 이른다. 이 類書는 오늘날의 가나다순과 같이 韻에 따라 항목을 배열한 일종의 대백과사전이다. 經書, 史書, 詩文集, 佛敎, 道敎, 醫學, 天文, 卜筮 등과 관련된 도서들을 총망라하고 관련사항을 발췌한 후, 내용별로 분류하여 『洪武正韻』의 문자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그 규모가 방대하여 완성 당시 寫本으로 正本을 1부 만들고, 1562년 副本을 1부 만들었는데, 正本은 明朝가 멸망할 때 燒失되었다. 副本 1부는 淸나라에 전해져 『四庫全書』를 편찬할 때 이용되었다.

38) 『永樂大典』, 卷之一萬四千二百二十의 三十二에는 「地理全書」 「取勢篇」의 尾注에 ‘與狐首經. 勢元篇同’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地理全書』 「取勢篇」이 『狐首經』 「勢元篇」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의미한다. 許仲毅, 余嵐 責任編輯, 『海外新發現永樂大典十七卷』,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3, 511-512頁. 이하 永樂大典本이라고 약칭한다.

39) 余象斗는 明末의 대표적인 刻書家이다. 嘉靖(1522-1566년)말에서 崇禎(1628-1644년) 초까지 활동하였던 儒, 商을 겸한 출판업자이기도 했다. 그는 福建省 建寧府 建陽縣 태생으로 建陽여씨는 대대로 책을 판각하는 집안이며 남송의 刻書家 余文興의 후손이다. 그는 부친 여맹화의 각서 직업을 계승하고 부친이 창설한 雙峰堂을 운영하였다. 그는 많은 고서를 각서하여 다시 펴내고 소설도 출간하였다. 아마 『狐首經』도 이러한 작업을 통해 출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0) 蔡元定은 風水地理學史에서 20편이던 『葬書』를 8편으로 정리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림 3〉 『호수경』 통일전서본



〈그림 4〉 『호수경』 영락대전본

만든 총 616字的 축약본이다.

『호수경』에서 「천원편」은 총론을, 「지원편」은 장사의 요점을, 「인원편」은 산자와 죽은 자의 감응을 논하였다. 「산원편」, 「수원편」, 「주원편」, 「세원편」, 「형원편」은 형기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기원편」은 이기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또 「장원편」은 선택론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천원편」에서는 오행의 기의 운행을 통해 사계절 만물이 화생됨을 논하였다. 즉 청명만기운은 하늘이 되고, 탁한 기운은 땅이 되는데 천지 만물은 기의 작용으로 인해 형성되고 왕성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가 응결되면 만물은 뿌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늘의 성수 또한 기로 인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sup>41)</sup>

41) 앞의 책, 『地理參贊玄機仙婆集』, 861頁: “清氣上騰, 輕浮者天, 濁氣下凝, 重濁者地. 氣交含利, 萬物始生, 氣乃炎蒸, 萬物以盛, 氣乃凝<sup>1)</sup>靈, 萬物以成. 氣乃凝結, 萬物歸根, 成始成終, 爲天地根, 在天成象, 在地成形.”

「지원편」에서는 기는 형상을 통해 운행되니, 장사에서는 멈춘 곳을 타야 됨을 논하였다. 그래서 형이 그친 곳에 기가 쌓인 곳이 길지인데, 오행의 기가 흐름으로 인해 내용의 세가 형성되고, 내용이 멈춘 곳이 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사의 요점은 용이 일어난 곳을 살피고 혈은 그 멈춘 곳을 타야 된다는 것이다.<sup>42)</sup>

「인원편」에서는 생기를 타서 장사지내면 제반 복이 산 사람에게 이롭게 논하였다.<sup>43)</sup>

「산원편」에서는 사람이나 산은 형체가 다르지만 생기를 타고 있음을 논하였고, 안산이

42) 위의 책, 『地理參贊玄機仙婆集』, 861-862頁: “形止氣蓄, 化生萬物, 是謂十地, 百昌資始, 萬物發生. 五氣所行, 行乎地中, 行因勢起, 聚因勢止. 起曰來龍, 止爲坐穴, 葬原其起, 穴乘其止. 千尺爲勢, 百尺爲形, 勢來形止, 是曰全氣, 全氣之地, 當葬其止.”

43) 위의 책, 『地理參贊玄機仙婆集』, 863頁: “氣行地中, 沖和蒸育, 遺體溫潤, 氣感而應, 鬼福及人. 陰宅崇擾, 家訟乃興.”



케와 같고 생기가 가득하며 세가 머물고 형이 분명하며, 앞에 물이 흐르고 뒤가 언덕이 받쳐 주면 혈이 조성된다고 하였다.<sup>44)</sup>

「수원편」에서는 물은 혈액이니 산의 음덕이 된다고 보았다. 즉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면 복록이 따르고 대대로 공후에 봉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로 된다는 것이다.<sup>45)</sup>

「주원편」에서는 순일하여 잡스럽지 않고 기가 순수하다 해도 내용이 잡스러우면 오행법을 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sup>46)</sup>

「세원편」에서는 땅은 그 세가 각각 다르고, 응함 또한 같지 않음을 논함면서 세와 형이 서로 순응한 곳에 장사지내면 길하나, 형과 세가 서로 거스른 곳에 장사지내면 흉하다고 하였다.<sup>47)</sup>

「형원편」에서는 형을 보고 혈을 정하면, 길함을 맞이하고 흉함을 피함을 논하면서 미묘한 산세의 구별은 중요하므로 절대 차질을 빚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sup>48)</sup>

「장원편」에서는 “음양이 차이나고 잘못되는 것, 세시가 어긋나는 것, 노력은 적게 하고 큰 것을 도모하는 것, 재산이나 권세에 의지하는 것, 뒷사람에게 참람하게 하고 아래 사람을 꺾박하는 것, 변고가 일어나고 괴이함이 보이는 것 등 이런 장사는 반드시 흉하다.”고 하였다.<sup>49)</sup>

44) 위의 책, 『地理參贊玄機仙婆集』, 864頁: “几案橫張, 生氣洋洋, 勢止形昂, 前潤後岡, 龍首之藏.”

45) 위의 책, 『地理參贊玄機仙婆集』, 865頁: “山來水回, 福祿自隨, 山向水流, 枯稿憂愁, 水滌穴立, 奕世公侯.”

46) 위의 책, 『地理參贊玄機仙婆集』, 865-866頁: “山骨歷屺, 青龍端伯, 無偏無頗, 無反無側. 純一不雜, 氣於純粹, 來山旣雜, 難定五行.”

47) 위의 책, 『地理參贊玄機仙婆集』, 866頁: “勢與形順, 葬之者吉, 形與勢逆, 葬之者凶.”

48) 위의 책, 『地理參贊玄機仙婆集』, 867頁: “山止而降, 勢盡而藏, 爲首爲尾, 微妙在智, 毫釐有差, 禍福千里.”

49) 위의 책, 『地理參贊玄機仙婆集』, 868頁: “陰陽差錯,

「기원편」에서는 음기와 양기가 주관하는 방위 및 지남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 4. 「호수경」의 저자

『역대지리정의비서이십사종』, 『형가이십종』에서는 『호수경』의 저자를 백학이라 하였고 『지리참찬현기선과집』에서는 작자의 성명이 분명치 않다고 하였다. 실제로 『호수경』의 저자로 언급된 백학은 청오자처럼 그 인물에 대한 고증이 명확하지 않다. 백학은 전설적인 인물로 등장하거나 도교의 신선으로 백학선(白鶴仙)이라는 언급이 나올 뿐이다. 역사적 기록으로는 『송사』에서 백학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책명이 확인된다.<sup>50)</sup>

그 밖에 고구려 장군이었다가 당나라로 귀화한 고자(高慈)의 묘지명에 백학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묘지명에서는 “비로소 우정의 땅을 택하고……장차 백학의 술법에 맞는 분묘를 조성하는데, 먼저 청오의 술법에 맞는 자리를 찾는다.”<sup>51)</sup>라고 하여 백학을 청오와 대비시켜 풍수지리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려시대 현종 때의 현화사비<sup>52)</sup>에도 백학이 청오와 대구(對句)로 등장한다. 비에서는 “직접 백료들을 이끌고 서울 동북쪽 약 30리에 있는 금신산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기로 정하였습시다. 청오가 길함을 고하고 백학이 상서로움을 알리는 곳으로 산수의 근본에 합당하

歲時乖戾, 力小圖大, 憑福特勢, 借上偏下, 變應見怪, 葬者必凶.”

50) 『宋史·藝文志』藝文五, 子類, 五行類: “『白鶴望山經』一卷, ……『錦囊經』一卷.” [元] 脫脫 等撰, 『宋史·藝文志』, 中華書局, 北京, 5260頁, 1977.

51) 高慈墓誌銘: “始擇牛亭之地壘, ……將營白鶴之墳, 先訪青鳥之兆.”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 I, 國史編纂委員會, 果川, 460쪽, 1995.

52) 高麗 顯宗이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지은 玄化寺의 개창을 기념하여 지은 비문.

고 점을 쳐보니 음양의 이치에도 부합하였습니다.”<sup>53)</sup>라고 하여 풍수지리법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서거정의 『사가시집』, 제 14권의 시인 ‘풍수 승려 일행에게 주다.’에도 청오와 백학이 등장한다. 시에서는 “강산의 도처마다 청오가 있고, 병석으로 유람할 때 백학이 따르네.(江山到處靑鳥在, 瓶錫遊時白鶴隨)”라고 하여 청오와 백학을 대비시켰다.

명대의 『지리인자수지』<sup>54)</sup>에는 백학을 귀곡자·청오자·적송자·황석공과 같은 전국시대 신선으로 언급하였다.<sup>55)</sup>

위의 같이 역사적으로 백학은 청오와 같이 풍수지리가, 풍수지리법등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또 전설적인 도교의 신선이 풍수의 도사로 변형되어 청오자와 더불어 풍수지리법의 대명사가 된 것으로 보이며, 청오가 『청오경』의 저자로 가탁된 것과 같이 백학도 전국시대의 유명한 신선으로서 『호수경』의 저자로 가탁된 것으로 보인다.

## 5. 『호수경』의 성립 연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호수경』은 늦어도

53) “已親率百僚於京城東北約三十里金身山, 遷定葬地, 靑鳥告吉, 白鶴呈祥, 披圖合山水之經, 占兆契陰陽之理.” 許興植, 『韓國金石全文』中世上, 亞細亞文化社, 서울, 441쪽, 1984.

54) 만나라 徐善繼, 徐善述 형제가 風水地理 서적 250종을 집대성하여 편집한 風水書籍. ‘地理人子須知’란 제목은 ‘사람의 자식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55) 『地理人子須知』堪輿宗旨: “時入戰國, 則皆懵然, 雖有鬼谷, 不染世塵, 靑鳥, 白鶴, 赤松, 黃石, 皆避世之隱, 君子抱道岩穴(그 후 전국시대에 접어들어 모두 몽매하였어도, 오히려 귀곡자 같은 이는 세상의 잡다한 일에 물들지 않았고, 靑鳥子, 白鶴仙, 赤松子, 黃石公 등은 모두 세상을 피해 은둔하였는데, 암혈에 살면서도 도를 품은 군자들이었다.)” 徐善繼, 徐善述 著, 『地理人子須知』, 武陵出版有限公司, 臺北, 403頁, 2000.

송대에는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송대에는 『호수경』에 대한 주석본도 있었다. 송대의 휘주(徽州)는 학술문화가 매우 발달한 곳이다. 휘주의 신건서원(新建書院)은 송대에 인쇄된 문헌이 많이 남아있다.

개인이 편찬한 문헌집의 기록에 의하면 유극경이 『호수경』에 주석을 달았던 것으로 전한다.<sup>56)</sup> 『호수경』에 주석을 붙인 사람을 유극경이 아니라 유광경이라고 기록한 서적도 있다.<sup>57)</sup> 그것은 오기(誤記)로 보인다. 왜냐하면 유극경의 묘지명에 ‘풍수지리서의 조종인 『호수경』의 주를 유극경이 10년에 걸쳐 완성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극경은 자가 무덕이고, 강서성 무원현 제계사람이다. 초기에 과거시험에 참가했으나 여러 번 실패하였다. 나중에 청낭술에 정통하여 가는 곳마다 마음속에 분명하여 길지를 찾아 다녔는데 마치 주방장이 능숙하게 소를 잡듯 하여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었다. 『호수경』을 지리서의 조종이라 하여 주석에 주력하여 수년에 걸쳐 완성하였다……85세에 죽었는데, 조흥제가 묘지명을 지었다.<sup>58)</sup>

56) 周曉光, 『徽州傳統學術文化地理研究』, 安徽人民出版社, 合肥, 26頁, 2006: “秘塚等刻, 遊克敬箋釋之『狐首經』.”

57) 吳慰祖 校訂, 『四庫探進書目』, 商務印書館, 北京, 272頁, 1960: “『狐首經』一卷(刊本), 宋 濟水, 游光敬集注.” 高令印, 陳其芳著, 『福建朱子學』, 福建人民出版社, 福州, 94頁, 1986: “彙集堪輿名著加以己意成編. 彙集之著作有, 昆山盛符『新彙集』, 樗里子『靑鳥經』, 張良『靑靈經』, 郭璞『葬書』, 游光敬『集注狐首經』, 陳搏『釋注靑囊經』等(휘집감여명저는 뜻을 보태어서 편을 이루었다. 휘집의 저작은 곤산성부 『신휘집』, 저리자 『청오경』, 장량 『청정경』, 광박 『장서』, 유광경 『집주호수경』, 진단 『석주청낭경』 등이 있다.)”

58) 李國玲 編纂, 『宋人傳記資料索引補編(全三冊)』, 四川大學出版社, 成都, 1228頁, 1994: “游克敬, 字務德, 婺源濟溪人. 初治舉子業, 屢不利. 精於靑囊術, 足目所到, 心思赴之, 至其妙處, 如解牛削鐵, 人不能窺. 謂『狐首經』爲地理書之祖, 肆筆箋釋, 數年而成. ……年八十五卒, 曹弘齊爲墓誌銘.”

『호수경』을 지리의 조종이라 하였고, 열편의 문장에서 큰 준비를 하고 주석에 주력하여 10년에 걸쳐 완성하였다.<sup>59)</sup> 기의 손자인 극경은 지학에 정통하여 『호수경』에 주를 달았다.<sup>60)</sup>

유극경의 주석본이 『집주호수경』인 점에서 그것이 당시까지 전해오던 『호수경』의 주를 수집한 저서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송대 혹은 그 이전에 『호수경』이 존재했고, 다양한 주석본이 있었을 만큼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의미한다. 위의 묘지명에는 유극경이 풍수지리 실력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그가 10년의 시간을 투자해 『집주호수경』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호수경』의 영향력을 설명하고도 남는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자<sup>61)</sup>가 『장서』와 『호수경』을 『적정경』과 관련시켜 언급한 점에서도 송대에 『호수경』은 이미 존재했고 영향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청대의 원수정은 『호수경』을 진대(晉代) 이전의 서적일 것으로 보았다. 원수정은 건륭 20년 겨울에 지은 『지리답자록』의 서문에서 ‘정초(1103-1162)가 지은 『통지』에는 『상충』과 『청낭』 등의 서적이 기록되어 있고, 마단림의 『문헌통고』에는 『괄오경』

59) 游君務德克敬墓志銘: “謂『狐首經』爲地理之祖, 十元之中, 包涵大備, 肆筆箋釋, 十年而成.” 李修生 主編, 『全元文』(九), 江蘇古籍出版社, 南京, 189頁, 1999.

60) 『新安名族志』後卷 遊: “璣孫克敬, 精地學, 註『狐首經』.” [明]戴廷明, [明]程尚寬等撰, 『新安名族志』, 黃山書社, 合肥, 662頁, 2004.

61) 宋代의 朱子는 儒學뿐만 아니라 風水地理에도 밝았던 학자이다. 그는 송나라 황제 孝宗이 죽자 그 능 선정과 관련하여 당시 황제 寧宗에게 『山陵議狀』을 지어 올리기도 했다. 朱子의 『山陵議狀』은 그 이후 중국과 조선에서 風水地理에 관한 일종의 기준이 되었고 風水地理를 논할 때마다 『朝鮮王朝實錄』에서도 빈번하게 거론되었다.

과 『호수경』 같은 수십 종의 형기론 서적이 기록되어 있다.<sup>62)</sup> 라고 하였다. 또 범례에서 ‘『호수경』은 괘박이 많이 인용하여 말했으므로 필시 진대(晉代) 이전의 서적일 것’이라 하였다.<sup>63)</sup>

조지프 니덤은 『중국과학기술사』에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고대에 유행했던 감역문헌, 즉 『호수경』을 소개하였다.”<sup>64)</sup>라고 하였다. 또 조지프 니덤은 『호수경』의 성립 연대를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주를 달고 있다.

정사초(?-1332년)는 『소남문집』 제 16 쪽에서 말하기를 그가 살던 시기에는 오직 『호수경』만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그것이 진대 괘박이 지은 것으로 여겼다.<sup>65)</sup>

즉, 송말원초 사람인 정사초<sup>66)</sup>는 『호수경』을 진대 괘박의 저술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왕행국은 『과학발현발명사전』의 나침반 관련 항목에서 『호수경』을 당대(唐代) 중기의 저서라고 하였다.<sup>67)</sup>

62) [清] 袁守定, 『地理啖蔗泉』: “鄭夾漈作通志載, 相塚, 青囊等書. 馬端臨文獻通考載八五狐首等書. 凡數十種. 皆形家言也.”, [清] 袁守定, 『地理啖蔗泉』, 武陵出版社, 臺北, 3頁, 2003.

63) [清] 袁守定, 『地理啖蔗泉』: “惟狐首經之言. 多爲郭恭軍所引. 必晉以前之書也.”, 위의 책, 『地理啖蔗泉』, 12頁.

64) 앞의 책, 『中國科學技術史』, 292頁: “不過, 它向我們介紹了以前未曾遇到過的古代流行的堪輿文獻, 即『狐首』.”

65) 위의 책, 『中國科學技術史』, 292頁: “鄭思肖(卒于1332年)在其『所南文集』第十六頁說, 在他那個時代只有一種『狐首經』尚存, 他認爲那是晉代郭璞所著.”

66) 자는 소남, 호는 억옹이며 시인이자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송이 망한 후 스스로 호를 “소남”, “목혈국인”(목과 혈을 합쳐 쓰면 송이 됨)이라고 했는데, 이 때부터 난초는 군자의 상징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67) 王行國 編, 『科學發現發明辭典』,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38頁, 1994: 唐朝中期的『狐首經』中有“針雖

현대 중국의 지리학자인 양문형은 『호수경』을 『청오경』과 같이 언급하면서 양균송의 『감룡경』보다 이른 문헌, 즉 당대(唐代) 이전의 문헌으로 보았다. 그는 “당대 양균송의 『용경』과 이것보다 조금 이른 『호수경』에서는 산맥의 승강(升降)에 대한 사상이 싹터 있었는데, 이는 풍수학설이 지질학 발전에 끼친 큰 공헌이다.”라고 하였다.<sup>68)</sup>

『사해』<sup>69)</sup>에서는 『호수경』을 당대(唐代)의 감여술서라고 하였고,<sup>70)</sup> 『명십삼릉』의 저자인 호한생은 동한, 위진 시기의 저서일 것으로 보았다.<sup>71)</sup>

이상에서 열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狐首經』의 성립연대를 추정하면 다음의 세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 첫째는 곽박의 연대인 진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호수경』이 『장서』에 많이 인용되었으므로 진대로 보는 것인데, 이 의견은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장서』를 진대(晉代)의 문헌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나침반과 관련하여 당대 중기나 그 이전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지남침의 자편각 개념을 당대 이전에 정립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은 『호수경』의 성립연대를 양균

指南, 本實戀北”之句, 說明唐朝已有指南針.(唐朝 中期的『狐首經』에는 “針雖指南, 本實戀北”라는 문구가 있는데 唐代에 이미 지남침이 있었음을 설명한다.)

68) 楊文衡, 『中國風水十講』, 北京, 華夏出版社, 228頁, 2007: “而在我國唐代楊筠松『龍經』和此書更早的『狐首經』中就有這種山脉能升降的思想萌芽, 是風水學說對地質學發展的一大貢獻.”

69) 1937년에 대만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사전으로서 고대사를 포함하여 송, 원대의 회곡과 소설까지 망라한 사전이다. 舒新城, 張相, 沈蕪 등이 편찬하였고, 권말에 국음 상용자 독음표와 역명 서문 색인도 수록하였다.

70) 譚國慶, 秦豔平, 『真相大白天下事』, 北嶽文藝出版社, 北京, 239-240頁, 1993.

71) 胡漢生, 『明十三陵』,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24頁, 1999: “東漢, 魏晉時期, 基于禍福之說的風水術十分盛行, 傳世的風水名著有不少是托名那時人所著. 如, 漢青烏子的『青烏經』, 白鶴仙的『狐首經』, 赤松子的『青囊經』, 魏管輅的『管氏地理指蒙』, 晉郭璞的『葬書』等.”

건축역사연구 제19권 1호 통권68호 2010년 2월

송 이전으로 보기도 한다. 셋째는 여러 가지 문헌의 고증을 통해 늦어도 송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송대는 여러 가지 판본의 『호수경』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실전되었지만 유극경이 당시까지 존재했던 『호수경』의 주를 수집하여 『집주호수경』을 만든 것이 그 한 예이다.

## 6. 『청오경』, 『금낭경(장서)』, 『호수경』의 관계

양문형은 『장서』에 인용된 경이 『청오경』이 아닌 『호수경』이라는 견해를 보였다.<sup>72)</sup> 이것은 『장서』의 ‘경월’ 내용이 『청오경』보다 『호수경』에서 더 완전하게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장서』의 내용은 크게 ‘경월’의 인용부분과 이에 대한 설명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즉 『장서』는 어떤 원전을 근간으로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아래는 사고전서본 『장서』의 ‘경월’ 부분과 선과집본 『호수경』을 비교한 것이다.

① “經曰, 氣感而應, 鬼福及人<sup>73)</sup>(경에 이르기를 “기가 감응하면 귀의 복이 산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경·인원편』의 “氣感而應, 鬼福及人.”과 같다.

② “經曰, 外氣橫形, 內氣止生<sup>74)</sup>(경에 이르기를 “외기는 가로놓여 형상이 되고 내기는 머물러 생기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경·인원편』의 “外氣橫形, 內氣止生”과

72) 楊文衡 主編, 『世界地理學史』, 吉林教育出版社, 吉林, 112頁, 1994: “漢代堪輿書『狐首經』明確提出, “氣感而應, 鬼福及人.(한대 감여서인 『호수경』에서는 명확하게 “기감이응, 귀복급인.”을 제시하였다)”

73) 『葬書』,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808冊, 臺灣商務印書館, 台北, 808-13頁, 1986.

74) 위의 책, 『葬書』, 808-15頁.

같다.

③ “經曰, 氣乘風則散, 界水則止<sup>75)</sup>(경에 이르기를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이 경계를 지으면 멈춘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경·인원편』의 “乘風則散, 界水則止.”와 같다.

④ “經曰, 淺深得乘, 風水自成<sup>76)</sup>(경에 이르기를 “얕게 묻거나 깊게 묻거나 생기를 타게 하면 풍수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경』의 “淺深得乘, 風水自成.”과 같다.

⑤ “經曰, 土形氣形, 物因以生<sup>77)</sup>(경에 이르기를 “흙이 형성되어야 기도 형성되니 사물은 기로 인해 생겨난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경·인원』에 ‘物因以生’부분은 없고 “土形氣行, 外氣行形. 內氣止生.”로 되어 있다.<sup>78)</sup>

⑥ “經曰, 形止氣蓄, 化生萬物, 爲上地也<sup>79)</sup>(경에 이르기를 “형이 멈추면 기가 쌓여 만물을 화생시키니, 으뜸가는 길지라 한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경·지원편』의 “形止氣蓄, 大生萬物. 是謂上地.”와 같다.

⑦ “經曰, 地有吉氣, 土隨而起. 支有止氣, 水隨而比. 勢順形動, 回復始終. 法葬其中, 永吉無凶<sup>80)</sup>(경에 이르기를 “땅에 있는 길한 기는, 흙을 따라 일어나고, 가지에 있는 멈춘 기는, 물을 따라 짝을 이룬다. 세를 따라 형은 움직여, 처음과 끝을 회복한다. 법에 따라 그 중심에 장사지내면, 영원히 길할 뿐 흉함이란 없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경·기원편』에 “地有吉氣, 隨土以起, 支有止氣, 水隨

而比. 勢順形動, 回復終始. 法葬其中, 永吉無凶.”과 동일한 내용인데 ‘土隨’만 ‘隨土’로 바뀌어 있다.

⑧ “經曰, 葬山之法, 若呼吸中, 言應速也<sup>81)</sup>(경에서 이르기를 “산에 장사지내는 법은 호흡하는 것처럼 반응이 빠르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경·지원편』의 “葬山之法, 若呼谷中.”과 같다.

⑨ “經曰, 童斷石過獨<sup>82)</sup>(경에 이르기를 ‘동, 단, 석, 과, 독산은.’) 이 부분은 『호수경·지원편』의 “童斷過獨.”과 거의 동일하다.

⑩ “經曰, 不畜之穴, 腐骨之藏也<sup>83)</sup>(경에 이르기를 “기를 쌓지 못한 혈은 뼈를 썩게 하는 장지이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경·지원』의 “不畜之穴, 腐骨之藏.”과 같다.

⑪ “經曰, 騰陋之穴, 敗槨之藏也<sup>84)</sup>(경에 이르기를 “솟고 천한 혈은 곽을 부수는 장지이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경·지원편』의 “騰陋之穴, 敗槨之藏.”과 같다.

⑫ “經曰, 勢止形昂, 前潤後岡, 龍首之藏<sup>85)</sup>(경에서 이르기를 “세가 멈추고 형이 우뚝하며,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는 앞은 산이 받쳐 주면 용머리에 장사지낸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경·산원편』의 “勢止形昂, 前潤後岡, 龍首之藏.”과 같다.

⑬ “經曰, 山來水回, 貴壽而財, 山囚水流, 虜王滅侯<sup>86)</sup>(경에 이르기를 “산이 오고 물이 돌아들면 귀하고 장수하며 부자가 되고, 산이 갇히고 물이 빠져버리면, 왕이 포로가 되고 제후가 멸망한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

75) 위의 책, 『葬書』, 808-14頁.

76) 위의 책, 『葬書』, 808-16頁.

77) 위의 책, 『葬書』, 808-16頁.

78) 이 구절은 선과집본에는 없고 음양비용본에만 있다.

79) 위의 책, 『葬書』, 808-18頁.

80) 위의 책, 『葬書』, 808-18頁.

81) 위의 책, 『葬書』, 808-21頁.

82) 위의 책, 『葬書』, 808-22頁.

83) 위의 책, 『葬書』, 808-27頁.

84) 위의 책, 『葬書』, 808-27頁.

85) 위의 책, 『葬書』, 808-27頁.

86) 위의 책, 『葬書』, 808-31頁.

경·수원편』의 “山來水回，福祿自隨，山向水流，枯槁憂愁.”와 내용상 거의 동일하다.

⑭ “經曰，地有四勢，氣從八方<sup>87)</sup>(경에 이르기를 “땅에는 사세가 있고 기는 팔방으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경·인원편』의 “地有四勢，氣從八方.”과 같다.

⑮ “經曰，穴吉葬凶，與棄屍同<sup>88)</sup>(경에 이르기를 “혈은 길한데 장사를 흉하게 지내면, 시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호수경·지원편』의 “穴吉葬凶，與棄屍同.”과 같다.

이 외에도 『장서』와 『호수경』은 동일한 내용을 보이는 곳이 많다. 아래는 사고전서본 『장서』와 선과집본 『호수경』의 10편 중 「지원편」을 비교한 것이다.

① 『장서』의 “葬者乘生氣也<sup>89)</sup>(장사는 생기를 타는 것이다.)”는 『호수경·지원편』의 “葬乘生氣.”와 내용상 동일하다.

② 『장서』의 “五氣行乎地中<sup>90)</sup>(오기는 땅속으로 흐른다.)”은 『호수경·지원편』의 “五氣所行，行乎地中.”과 내용상 동일하다.

③ 『장서』의 “葬者原其起，乘其止<sup>91)</sup>(장사는 그 기맥이 시작된 곳을 찾고, 그 멈춘 곳을 타는 것이다.)”는 『호수경·지원편』의 “葬原其起，穴乘其止”와 내용상 동일하다.

④ 『장서』의 “千尺爲勢，百尺爲形，勢來形止，是謂全氣，全氣之地，當葬其止<sup>92)</sup>(세로 와서 형으로 멈춘 것을 일러 온전한 기라 한다. 온전한 기의 땅에서는 마땅히 기가 멈춘 곳에 장사지내야 한다.)”는 『호수경·지원편』

의 “千尺爲勢，百尺爲形，勢來形止，是曰全氣，全氣之地，當葬其止.”와 같다.

⑤ 『장서』의 “若踞而候也，若攬而有也，欲進而却，欲止而深<sup>93)</sup>(마치 웅크리고 앉아 기다리는 듯하다. 마치 있으라고 끌어당기는 것 같다. 나아가고자 하면 멎고, 멈추고자 하면 깊다.)”는 『호수경·지원편』의 “若踞而候也，若攬而有也，欲進而却，欲止而深.”과 같다.

⑥ 『장서』의 “上地之山，若伏若連，其原自天，若水之波，若馬之馳，其來若奔，其止若尸<sup>94)</sup>(오뎅가는 터의 산은 엎드린 듯 이어진 듯한데, 그 근원이 하늘에서부터인 것 같다. 마치 물결이 일렁이듯 한다. 마치 말이 내닫는 듯하다. 그 오는 것은 마치 달리듯 한다. 그 멈춘 것은 마치 시체와 같다.)”는 『호수경·지원편』의 “若伏若連，若水之波，其原自天，若馬之馳，其來若奔，其止若屍.”와 같다.

⑦ 『장서』의 “若橐之鼓，若器之貯，若龍若鸞，或騰或盤，禽伏獸蹲<sup>95)</sup>(마치 풀무를 두드린 것 같다. 그릇을 쌓아 놓은 듯하다. 용 같기도 하고 난새 같기도 하며, 오르기도 하고 서러있기도 한다. 새가 엎드리고 짐승이 웅크린 듯하다.)”는 『호수경·지원편』의 “若橐之鼓，若器之貯，若龍若鸞，或蹇或盤，禽伏獸蹲.”과 동일한 내용이다.

⑧ 『장서』의 “天光發新，朝海拱辰……四勢朝明，五害不親<sup>96)</sup>(하늘의 빛이 새로이 빛나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다.……四勢는 조응이 분명하고, 다섯 가지 해로움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호수경·지원편』의 “天光發新，朝海拱辰，四勢端明，五害不親.”과 내용상 동일하다.

87) 위의 책, 『葬書』, 808-34頁.

88) 위의 책, 『葬書』, 808-37頁.

89) 위의 책, 『葬書』, 808-12頁.

90) 위의 책, 『葬書』, 808-12頁.

91) 위의 책, 『葬書』, 808-16頁.

92) 위의 책, 『葬書』, 808-17頁.

93) 위의 책, 『葬書』, 808-17頁.

94) 위의 책, 『葬書』, 808-22-23頁.

95) 위의 책, 『葬書』, 808-23頁.

96) 위의 책, 『葬書』, 808-23-24頁.

이상에서 보면 『장서』에 인용된 ‘경왈’ 부분이 『청오경』보다 『호수경』에 더 많고 ‘경왈’이외의 부분도 『장서』와 『호수경』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장서』에서 인용한 경은 『호수경』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그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장서』에서 인용한 경 가운데 하나가 『호수경』이라는 『지리인자수지』의 설명과 현대 중국 지리학자인 양문형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청오경』, 『금낭경』, 『호수경』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금낭경』과 『호수경』의 관련 부분을 살펴보고 경왈 부분과 관련하여 세 문헌을 비교하였다.

규장각본 『금낭경』의 “경왈기감이응 귀복 급인”의 주에서는 “장열이 말하기를 광박이 경왈이라고 인용한 것은 대개 『고장경』이다. …… 일행이 말하기를 광박이 경이라는 것은 『청낭경』을 인용한 것이다.”<sup>97)</sup>라고 하였다. 즉, 『금낭경』에서 인용한 경에 대해 『청오경』, 『고장경』, 『청낭경』이라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다.

선과집본 『호수경』의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 경전 10편은 작자의 성명이 분명치 않으며 광경순(광박)이 인용한 경전은 이것을 말한다.”<sup>98)</sup>라고 하여 『금낭경』에서 인용한 경이 『호수경』이라 하였다. 또 음양비용본 『호수경』에 있는 호순신의 제에서는 “일행은 『금낭경』에서 인용한 경전이 『청낭경』이라 하였고, 홍사는 『고장경』이라 하였다. …… 경순은 『청낭경』을 지금 다시 볼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하였으니, 어떻게 그것을 인용했겠는

가?”<sup>99)</sup>라고 하였다.

특히 청대의 섭구승은 『지리대성지리육경주』의 『장서주』에서 『장서』에 인용된 경이 『청오경』, 『해각경』, 『청낭경』, 『호수경』의 사경이며, 또 『장서』는 『청낭경』과 『청오경』의 주소(註疏)라고 주장하였다.<sup>100)</sup>

[표 1]은 『금낭경』의 ‘경왈’ 부분과 관련 있는 『청오경』 및 『호수경』의 내용을 대조하여 구체적인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로 미루어 보면 『금낭경』은 『청오경』과 『호수경』을 집대성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호수경』은 『금낭경』에서 ‘경왈’로 인용한 부분을 모두 담고 있으며 『호수경』의 「지원편」과 『장서』를 비교한 결과를 보아도 동일한 내용을 보이는 구절이 많다. 『장서』와 『호수경』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호수경』의 발문에 있는 호여가(호순신)의 견해를 소개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왕왕 郭璞이 이 經을 절취했다고 여기지만, 郭璞은 옛날에 실제로 그것을 보지 못했다. 義理가 있는 곳을 아는 데에는 古금이 없으며, 뜻이 이르고 말이 이름에도 역시 先後란 없는 것이다. 옛 사람이 用兵을 함에 孫子和 吳子の 법에 자기도 모르게 합치하고, 역사를 쓰는 사람이 春秋筆法과 우연히 일치하기도 한다. 郭璞도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노파심에서 篇末에 胡汝嘉가 跋文을 적는다.”<sup>101)</sup>

97) 奎章閣本 『錦囊經』 “經曰氣感而應 鬼福及人”의 註: “張曰璞引經曰, 蓋古葬經也. ……一行曰經者璞引青囊經也.”

98) 『狐首經』: “是經十篇, 不著作者姓名, 景純引經曰此也.”, 앞의 책, 『地理參贊玄機仙婆集』, 861頁.

99) 『狐首經』陰陽備用本 題: “一行乃謂錦囊所引經曰者青囊經, 泓師則謂古葬. ……青囊經景純自謂今不復見, 安得而引之.”

100) 『地理大成地理六經註』, 卷之一, 『葬書註』: “書中所引經文, 出青烏海角青囊狐首四經. 葬書是青囊青烏之註疏.”, 古藝葉九升先生, 『地理大成地理六經註』, 九經書局石印, 90頁, 1916. 이 책은 淸 康熙 26年(1687년)에 출간된 詒義堂原本을 影印한 것이다.

[표 1] 『청오경』·『금낭경』·『경월』·『호수경』 대조표

『청오경』 규장각본	『금낭경』 규장각본	『호수경』 음양비용본
吉氣感應, 累福及人.	經曰, 氣感而應, 鬼福及人.	氣感而應, 鬼福及人.
氣乘風散, 脉遇水止.	經曰, 氣乘風則散, 界水則止.	乘風則散, 界水則止.
內外相乘, 風水自成.	經曰, 淺深得乘, 風水自成.	淺深得乘, 風水自成.
內氣萌生, 外氣成形.	經曰, 外氣橫形, 內氣止生.	外氣行形, 內氣止生.
形止勢縮, 前案回曲, 金穀璧玉.	經曰, 形止氣蓄, 化生萬物, 爲上地也.	形止氣蓄, 大生萬物, 是謂上地.
地有佳氣, 隨土所起, 山有吉氣, 因方所主.	經曰, 地有吉氣, 隨土所起. 支有止氣, 隨水而比. 其法以勢, 順形而動, 回復始終. 法葬其中, 永吉無凶.	地有吉氣, 隨土以起. 支有止氣, 水隨而比. 勢順形動, 回復終始. 法葬其中, 永吉無凶.
童斷與石, 過獨逼側, 能生新凶, 能消已福.	經曰, 童斷石過獨, 生新凶消已福.	童斷過獨, 乖戾醜惡. 敗塚荒城, 砂磔枯槁.
山來水回, 逼貴豐財.	經曰, 山來水回, 貴壽而財.	山來水回, 福祿自隨.
不蓄之穴, 是謂腐骨.	經曰, 不蓄之地, 腐骨之藏也.	不蓄之穴, 腐骨之藏.
騰漏之穴, 翻棺敗槨.	經曰, 騰漏之穴, 敗槨之藏也.	騰陋之穴, 敗槨之藏.
穴吉葬凶, 與棄屍同.	經曰, 穴吉葬凶, 與棄尸同.	穴吉葬凶, 與棄體同.
勢止形昂, 前潤後岡, 位至侯王.	經曰, 勢止形昂, 前潤後岡, 龍首之藏.	勢止形昂, 前潤後岡, 龍首之藏.
	經曰, 地有四勢, 氣從八方.	地有四勢, 氣從八方.
	經曰, 土形氣行, 物因以生.	土形氣行.
	經曰, 葬山之法, 若呼谷中, 言應速也.	葬山之法, 若呼谷中.

### 7. 한국 문헌 속의 『호수경』

『호수경』은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 23년에 목효지(102)의 상소문에 인용된 외에도, 세

101) 陰陽備用本『狐首經』·跋: “不知者往往, 以爲僕頃所著, 竊取此經, 僕昔實未之見也. 是知義理所在, 初無古今, 意到語到, 亦无先後. 古人用兵, 有闔合孫吳, 作史有偶合春秋之法者. 僕幸類之. 故聊識篇末, 胡汝嘉跋.”

102) 陸孝智(?-1455년)는 조선 초기의 風水學人이다. 그는 주로 形氣論에 입각해 이론을 전개하는데 『호수경』을 2번이나 인용하였다.

종 27년에 김종서가 수릉(壽陵)을 평가할 때도 인용되었다. 이것은 『호수경』이 음양과 과시서는 아니었지만, 풍수지리가 성행했던 조선 초기에 통용되던 지리서였음을 의미한다.

아래의 기사는 능소인 안산 고읍 땅이 나쁜 땅이라는 진농시의 종 목효지의 상소문이다.

『호수경』에 이르기를, ‘주산이 감방에서 계축으로 전보하여 간방으로 수두하였다. 물의 행보가 더 먼저이고 산의 행



보가 더 뒤이니, 먼저 목기를 받고 다음에 토기를 받는다. 바야흐로 수기를 받을 때, 3년이 1보요, 10년이 일세라.’ 하였습시다.<sup>103)</sup>

위의 인용문은 음양비용본 「주원편」과 일치한다.

『호수경』에 이르기를, ‘나가야 할 곳으로 들어오면 어그러지는 일만 쌓이고, 들어올 곳으로 나가면 상하고 부서지는 일만 생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물의 나가는 것이 보이면 이름하여 단기라 하니 혈이 천관에 있다.’라고 하였습시다.<sup>104)</sup>

이 부분은 음양비용본 「수원편」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다.<sup>105)</sup> 다만 끝부분의 ‘우혈재천관(又穴在天關)’은 없다.

하연, 김중서 등이 수릉을 살펴보고 올린 상소문은 세종 27년(1445년) 4월 4일 3번째 기사로써 음양비용본 「주원편」과 거의 같다.<sup>106)</sup> 상서문의 『호수경』 관련 구성은 먼저 「주원편」을 인용하고 이에 대비해 실제 장소를 평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외에 『호수경』이 언급된 문헌은 조선 중기의 문장사대가의 한 사람인 상촌 신흠(申欽:1566년-1628년)의 『상촌선생

집』<sup>107)</sup>이다. 『상촌선생집』, 제34권의 ‘풍수가설(風水家說)’에 『호수경』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는 『호수경』을 송, 원 시대 이전의 서적으로 보고 있다.<sup>108)</sup>

『호수경』이 『상촌선생집』에 그 기록이 있고, 세종조에 목효지가 언급하였음은 『호수경』이 조선초기부터 중기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 8. 결론

풍수지리문헌 연구에 있어서 『호수경』에 대한 검토는 선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호수경』은 풍수지리 초기 경전이고, 그 내용이 『장서』와 상당부분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 『호수경』의 양기와 음기 주도 방위관은 『황제택경』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호수경』과 『황제택경』은 동남방의 주관은 양기, 서북방의 주관은 음기라는 관점은 동일하지만 그 기준 방위는 자오방과 건손방이라는 차이도 있다.

그리고 『호수경』은 형기론은 물론 구성,

107) 규장각 소장본, 목판본, 1636년 간행. 초간본은 신흠이 죽은 2년 후인 1630년(인조8년)에 그의 아들인 翊聖이 22권으로 간행하였다.

108) 『象村先生集』, 제34권, 風水家說: “上世有八五經者, 稱皇帝書, 蓋托之也. 後有狐首, 青鳥, 錦囊等經. 或稱郭璞所作. 又有洞林, 元會, 金鎖, 曜金, 神龍, 鬼砂, 龍首, 疑龍, 辨龍, 龍髓, 祖局, 龍祖, 禽星等書, 或稱楊筠松, 曾楊乙, 黃仙師, 左仙, 朱仙桃, 范越鳳, 劉公賴, 張師古, 王吉等所撰, 而亦未知真偽也. 然此皆宋元以前書也. 今則風水家蓋汗牛矣.(상고 시대에 『팔오경』이 있었는데 황제가 지은 글이라고 한 것은 대개 가탁한 것이다. 그 뒤로 『호수』, 『청오』, 『금낭』 등의 경이 있었는데 더러 광박이 지은 것이라고도 하며, 또 『동림』, 『원회』, 『금쇄』, 『요금』, 『신룡』, 『귀사』, 『용수』, 『의룡』, 『변룡』, 『용수』, 『조국』, 『용조』, 『금성』 등의 서적이 있는데, 더러 양균송, 중앙을, 황선사, 좌선, 주선도, 범월봉, 유공뢰, 장사고, 왕길 등이 지었다고 하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역시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송, 원시대 이전의 서적이고 지금은 풍수서적이 매우 많다.)”

103) 『世宗實錄』 世宗 23年(1441年) 8月 25日 기사: “『狐首經』云, “主山在坎, 轉步癸丑, 垂頭爲艮. 水行益前, 山行益後. 先受木氣, 次受土氣. 方受水氣, 三年一步, 十年一世.”

104) 『世宗實錄』 世宗 23年 8月 25日 기사: “『狐首經』云, “宜出而入, 乖戾之集. 宜入而出, 傷破之實.” 又云, “見水所出, 名曰短氣. 又穴在天關.”

105) 陰陽備用本 「水元」: “宜出而入, 乖戾之集. 宜入而出, 傷敗之實. ……見水所來, 名曰短氣, 見水所去, 名曰破流.”

106) 無偏無跛, 無反無側. (東北正艮, 當西正兌) 純一不雜, 氣力純粹. (艮帶丑寅, 兌帶庚辛) 來山既雜, 難定五行. 괘호 안은 선과집본에는 없지만 음양비용본과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부분이다.

팔괘, 자침, 득수, 파구 등의 언급을 통해 이기론을 설명한 초기문헌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초기 풍수지리문헌에서는 이기론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호수경』에 대한 연구는 형기론, 이기론, 풍수지리학사, 나반, 양택 등의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장서』의 ‘경왕’부분을 『청오경』, 『호수경』과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왕’의 경은 『청오경』보다는 오히려 『호수경』에 가깝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호수경』에 대한 검토는 『장서』와 『청오경』을 이해하고, 풍수지리학사나 풍수이론 연구를 위한 기초적 작업임을 의미한다.

송말원초 사람인 정사초는 『호수경』을 진대 괘박의 저술로 인식하였고 이수생은 『전원문』에서 괘박의 『청낭서』는 이미 화제에 타버려 현존하는 『호수경』이 가장 앞선 책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송, 원대에는 『호수경』을 최고의 풍수지리서로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수경』은 『직재서록해제』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는데, 『직재서록해제』는 송대의 문헌이므로 『호수경』은 송대 혹은 송대 이전의 문헌이 된다. 그 근거 중의 하나는 송대의 유극경이 『호수경』의 주석서를 찬술한 것이다. 아울러 주자(朱子)가 『호수경』을 『적정경』과 관련시켜 언급한 점에서 『호수경』은 송대에 유통되었던 풍수지리서라고 볼 수 있다. 이어 『전원문』에서 『호수경』을 가장 오래된 풍수지리서라 한 것은 『호수경』의 영향력은 원대에도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리인자수지』의 인용 목록과 「탁옥부집적제서기실」에도 『호수경』이 기록된 점은 『호수경』은 송대와 원대를 거쳐, 명대에도 여전히 주목받는 저서였고 괘박의 『장서』에 인용된 경전 가운데 하나로까지 건축역사연구 제19권 1호 통권68호 2010년 2월

인식되었음이 나타난다.

청대 원수정의 『지리답자록』과 청대 『흠정협기변방서』에는 『호수경』의 내용이 직접 인용되어 있다. 그것은 모두 『호수경』이 청대까지 줄곧 주목받는 풍수지리문헌으로서 『장서』와도 직접 관련된 경전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장서』 유강동본과 사고진서본에서 『호수경』을 인용하여 원문에 대한 주를 달았던 점에서도 분명해진다.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호수경』의 내용이 음양비용본에 남아있는 것은 특기할 일이다. 『조선왕조실록』의 『호수경』인용 내용과 음양비용본의 기록이 거의 같다는 점은 조선 초에 중시되던 『호수경』이 음양비용본과 같은 판본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호수경』은 초기 문헌이지만 『장서』와 『청오경』에 비해 보다 체계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 즉 『호수경』은 천·지·인·산·수·주·세·형·장·기의 십원으로 구성된 풍수지리학 원론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풍수지리학의 체계를 10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인식하고자 한 것이다.

#### <참고문헌>

- [宋] 陳振孫 撰, 徐小蠻, 顧美華 點校, 『直齋書錄解題』,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87
- [宋] 朱熹 撰, 朱傑人, 嚴佐之, 劉永翔 主編, 『朱子全書』第13冊,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80
- [宋] 范成大 纂修, 汪泰亨 等增訂, 『吳郡志』(宋元方志叢刊), 第一冊, 中華書局, 北京, 1990
- [宋] 范成大 撰, 陸振岳 點校, 『吳郡志』, 江蘇古籍出版社, 南京, 1999
- [元] 馬端臨, 『文獻通考』, 中華書局, 北京, 1986

6. [元] 脫脫 等撰, 『宋史·藝文志』, 中華書局, 北京, 1977
7. [明] 張鳴鳳 撰, 『狐首經』(『地理參贊玄機仙婆集』), 萬有善書出版社, 板橋, 1982
8. [明] 徐善繼, 徐善述, 『地理人子須知』, 武陵出版有限公司, 臺北, 2000
9. [明] 西一余象斗 著, 『正傳地理統一全書(上, 下冊)』, 大山書店, 台北, 2000
10. [明] 戴廷明, [明] 程尚寬 等撰, 『新安名族志』, 黃山書社, 合肥, 2004
11. [清] 陳夢雷 等撰, 『古今圖書集成』 474冊, 中華書局, 北京, 1934
12. [清] 袁守定 著, 『地理啖蔗錄』, 武陵出版社, 臺北, 2003
13. [清] 允祿 等奉勅撰, 謝路軍 主編, 鄭同點校, 『欽定協紀辨方書』, 華齡出版社, 北京, 2009
14. [清] 紀昀 等纂,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808冊,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986
15. 景仁文化社 編, 『風水地理叢書』, 景仁文化社, 서울, 1990
16. 古葵葉九升先生, 『地理大成地理六經註』, 九經書局石印, 民國 五年(1916)
17. 高令印, 陳其芳 著, 『福建朱子學』, 福建人民出版社, 福州, 1986
18.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 I, 國史編纂委員會, 果川, 1995
19. 김두규, 『地理新法』, 장락, 서울, 2001
20. 金恩輝, 胡樹兆 主編, 『中國地方志總目提要』, 漢美圖書有限公司, 臺北, 1996
21. 譚國慶, 秦豔平, 『真相大白天下事』, 北嶽文藝出版社, 北京, 1993
22. 束景南, 『朱熹佚文輯考』, 江蘇古籍出版社, 南京, 1991
23. 施延鏞 編, 『中國叢書綜錄續編』, 北京圖書館出版社, 北京, 2003
24. 楊文衡 主編, 『世界地理學史』, 吉林教育出版社, 吉林, 1994
25. 楊文衡, 『易學與生態環境』, 中國書店出版社, 北京, 2003
26. 楊文衡, 『中國風水十講』, 華夏出版社, 北京, 2007
27. 陽海清 編撰, 『中國叢書廣錄』(上冊), 湖北人民出版社, 武漢, 1996
28. 吳慰祖 校訂, 『四庫探進書目』, 商務印書館, 北京, 1960
29. 王其亨 等, 『風水理論研究』(第2版), 天津大學出版社, 天津, 2005
30. 王行國 編, 『科學發現發明辭典』, 中國國際廣播出版社, 北京, 1994
31. 劉周堂, 『傳世藏書·子庫·術數(1)』, 海南國際新聞出版中心, 海口, 1996
32. 李國玲 編纂, 『宋人傳記資料索引補編(全三冊)』, 四川大學出版社, 成都, 1994
33. 李修生 主編, 『全元文』, 江蘇古籍出版社, 南京, 1998
34. 李 零 主編, 『中國方術概觀』, 人民中國出版社, 北京, 1993
35. 李約瑟, 『中國科學技術史』, 科學出版社·上海古籍出版社, 北京, 1990
36. 朱傑人, 嚴佐之, 劉永翔 主編, 『朱子全書』第13冊,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80
37. 周曉光, 『徽州傳統學術文化地理研究』, 安徽人民出版社, 合肥, 2006
38. 胡漢生, 『明十三陵』, 中國青年出版社, 北京, 1999
39. 許仲毅, 余嵐 責任編輯, 『海外新發現永樂大典十七卷』, 上海辭書出版社, 上海, 2003.
40. 許興植, 『韓國金石全文』中世上, 亞細亞文化社, 서울, 1984  
(『조선왕조실록』과 『상헌선생집』의 원문과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자료(<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와 한국고전번역원 자료(<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를 이용하였다.)

접수(2009. 12. 15)

수정(1차: 2010. 1. 26, 2차: 2010. 1. 29)

게재확정(2010. 2. 6)

# A Philological Study on Hushoujing(狐首經)

Chang, Sungkyu

(Senior Researcher, Kongju National Univ. Institute of Humanities)

Kim, hyejung

(Lecturer, Daejeon Univ.)

## Abstract

Hushoujing(狐首經) is Fengshui documents traditionally known to be written by Baihe(白鶴) of Han(漢) dynasty, which is hardly known in Korea. Baihe, the author, like Qingwuzi(青烏子) has no evident personal background in history.

There is a copy known to be written by Baihe of Han dynasty included in Dilitong-yiquanshu(地理統一全書), which was published in 1628. The editor is known as Yuxiangtou(余象斗) from Fujiansheng(福建省) Jianyangxian(建陽縣) the same home town as Zhuxi(朱熹)'s.

In contents and system, Hushoujing has the deep(profound) relationships between Qingwujing(青烏經) and Zangshu(葬書), which attracts attention nowadays. Stud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Qingwujing, Zangshu and Hushoujing is the realm which requires systematic approach.

Another reason for Hushoujing's attraction in Fengshui research lies in the contents related with Liqilun(理氣論). Mentioning Xingqilun(形氣論), Hushoujing also includes the explanation of Chinese compass needle, Deshui(得水) and Pokou(破口), and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main theme of Liqilun.

Hushoujing reveals a view point that both Xingqi(形氣) and Liqi(理氣) are important. Accordingly this means that we can understand Liqilun more clearly through studying Hushoujing. It is clearly recorded in the documents of Song(宋) dynasty that there was odd notes documents of Hushoujing as well as mentioning it. Therefore it is very likely that Hushoujing had been written before Song dynasty.

Being contained in Huxianshengyinyangbeiyong(胡先生陰陽備用), Dilicanzanxuanjixianpoji(地理參贊玄機仙婆集), Dilitongyiquanshu, Lidaidilizhengyimishuershishizhong(歷代地理正義秘書二十四種), Xingjiaershizhong(形家二十種), 5 kinds of Hushoujing's copies are descended.

The contents of Hushoujing are also introduced in documents of sejong period in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This means that Hushoujing is the geographical books prevailed representatively in early years of Choson Dynasty and studying Hushoujing is indispensable to studying Fengshui history or Chinese compass(羅盤) as well as deep understanding of Fengshui theory.

---

keywords : FengShui, Hushoujing, Baihe, Block book, Documentary records

---